

47장. 고센에 정착한 야곱

46장 후반부와 47장에서는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한 후에,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문제를 이야기한다. 비록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이 감동적으로 기록되었지만, 더 자세히 기록된 것은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일이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했다. 첫째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어야 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했다. 고센 땅은 목초가 많아서 야곱의 아들들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곳일 뿐 아니라 애굽 사람과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요셉은 이미 고센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45:10) 본문에서는 그곳을 얻기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 고센에 분리하여 정착한 야곱의 가족 (47:1-12)

1) 고센에 정착하기 위한 요셉의 노력 (47:1-6)

요셉은 자기가 먼저 바로에게 형제들에 대한 소개하고, 형제들에게도 바로를 만나거든 그들이 목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하였는데(46:21-34), 이제 형제 다섯을 택하여 바로에게 인사를 시켰다. 바로가 그들의 직업을 묻자 그들은 자신들이 목자임을 밝히고는 고센 땅에 거하기를 청하였다(47:1-6).

요셉은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을 구하는 일과 애굽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함께 추구하였다.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으면서도 애굽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번성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바로는 요셉과 형제들의 겸손한 말을 듣고 바로는 애굽 땅 좋은 곳인 고센에 살기를 허락하였다. 또한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짐승을 잘 다루는 자가 있으면 바로의 짐승도 돌보도록 하였다. 바로가 말하는 짐승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애굽은 좋은 말을 키우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바로로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살 곳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할 일도 준 것이 된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큰 배려이다.

2)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 (47:7-10)

형제들을 통해서 의도한 바를 다 이룬 다음에 요셉은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하였다. 바로에게 고센 땅을 간청할 때 족장인 그의 아버지가 함께 부탁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바로와 따로 만나게 하였다. 이것은 아버지를 존경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야곱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언약이 있는 자였다. 이주하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바로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70명 때문에 바로가 기근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았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요셉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야곱은 족장으로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담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세상의 통치자에게 무엇을 청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는 사실이다. 야곱은 바로를 두 번 축복하였다. 처음 만나서 축복하자 바로는 야곱에게 그의 나이를 물었다. 야곱은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하고, 나그네 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다시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야곱은 세상 제국의 황제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나그네 생활에 대하여 증언하였던 것이다.

3) 라암세스에 거주하는 야곱의 가족 (47:11-12)

고센 땅을 얻으려고 주도면밀하게 일을 추진하였던 요셉은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자 그곳에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안착시켰다. 고센 땅은 후에는 라암세스로 불렸고(출 1:11) 나일 강 북동 지역에 있었다.

형제들은 고센 땅에 ‘우거’하기를 원하였지만, 요셉은 주도면밀하게 일을 경영하여 그곳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한 나라의 기틀을 이룰 만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야곱에게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46:3) 하신 말씀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름지면서도 분리된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2. 요셉의 정책 (47:13-26)

창세기 47장 후반부 이야기는 흉년이 2년 지난 다음의 이야기로 생각된다. 백성들은 그들이 저장한 것으로 2년을 지냈고, 그들의 저장한 식량이 끝났을 때 요셉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돈으로 식량을 샀고 그 다음에는 가축과 바꾸었고, 마지막으로는 땅과 자신들을 팔고서 먹을 것을 구하였다.

흉년이 시작하자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바로의 총리인 요셉은 곡물을 팔아서 얻은 돈을 모두 바로에게 돌리고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정한 재물 관리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요셉은 그 지역의 돈이 마를 때까지 철저히 판매하였다.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아와서 그들에게 돈이 없음을 호소하면서 식량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무상 배급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승을 받고 식량을 팔았다. 말, 양, 소, 나귀 등을 가져와서 식량을 사서 또 한 해를 넘겼다. 17절에서 요셉이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짐승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을 가리킨다. 요셉을 주어로 사용해서 애굽 사람들을 흉년에서 먹이고 기른 것은 바로 요셉임을 강조한다.

요셉이 돈과 가축을 다 거두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땅과 몸이었다. 백성들이 땅과 자기의 몸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면서 토지와 자기의 몸을 사고 대신 식물과 종자를 줄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토지와 몸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는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요셉은 애굽 백성들이 파는 땅들도 다 사서 바로의 소유로 삼았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토지와 몸을 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 흉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그들에게 씨를 주어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였다. 경작한 후에 추수의 20%를 바치게 하였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약 1/3을 이자로 바치게 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매우 싼 것이었다. 애굽 백성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바로는 풍년 때에 5분의 1을 거두게 하였다(41:34). 지금은 토지와 그들의 몸이 바로의 소유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동일한 비율의 공세를 바치게 한 것은 이 비율이 매우 낮음을 나타낸다. 토지의 소유권을 왕에게 넘긴 애굽 백성들이 이전과 동일한 비율을 냈다는 것은 그들이 토지 소유자에서 소작농으로 신분이 바뀐 것을 나타낸다.

요셉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애굽 제사장들의 땅은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된다(22, 26절). 애굽의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먹을 것을 받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갔다. 애굽의 제사장에 관하여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은 애굽이 여전히 이교적인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애굽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의 도움으로 나라가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교의 제사장들이 세력을 굳게 잡고 있다. 이러한 나라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향이 될 수 없다.

3. 고센 땅에서 번성하는 야곱의 후손들과 야곱의 축복 (47:27-31)

1) 이스라엘의 번성 (47:27)

요셉이 흉년 동안에 취한 정책이 47:13-26에 나오는데, 그 앞과 뒤인 47:11-12과 47:27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이것은 애굽 사람이 종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적으로 번성하는 것, 그리고 애굽 사람은 땅을 빼앗기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좋은 땅을 얻는 것을 대조하기 위한 면도 있다.

2) 야곱의 유언 (47:28-31)

애굽 사람들은 시체를 잘 보존하였고 왕족의 경우는 거대한 피라미드에 묻혔으나 야곱은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에 따라서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였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불러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다.

야곱이 맹세의 형식과 용어를 사용하여서 맹세를 시킨 내용은 첫째,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는 말이었다. 같은 사실을 두 가지로 반복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은 맹세의 내용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중요한 일에 맹세한 요셉은 이제 죽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맹세를 수행할 의무를 짊어졌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한 맹세는 자기의 집안에 주신 언약에 대해서 맹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요셉이 맹세를 하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였다. 그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경배하였다. 여기에서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땅에 내려와 경배할 힘이 없어서 침대의 끝에서 경배하였다는 의미일 것이다. 히브리서 11:21에서는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침상’이 ‘지팡이’로 번역되었다. 지팡이는 야곱의 나그네 생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물건이었는데, 그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면서 야곱은 침상에 앉아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하였을 것이다.

야곱의 마지막 17년은 요셉의 처음 17년과 비교가 된다. 요셉은 17년 동안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았는데 후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17년을 ‘신실하게’ 돌보았다(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전에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유지되게 하셨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대하며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묵상과 실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축복하고 다스리는 일

1.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일의 의미

요셉이 이렇게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는가가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요셉은 그의 가족이 애굽에서 땅을 얻어도 애굽 사람과 동화되지 않고 분리되어 살기를 추구하였다(참조. 34:21). 애굽 사람과 분리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낮게 여기는 일, 즉 그들이 목자라는 사실을 거리낌이 없이 밝히는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담이 있었고(43:32) 또한 언어도 달랐다. 게다가 도시 사는 사람들은 가축 냄새를 싫어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낮게 여김을 받으면서도 따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였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야곱의 가족에게는 더 좋은 경우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싫어하는 것이 교회의 행보를 위해서는 더 좋은 경우가 된다.

요셉은 바로에게 있어서 아버지로 삼고 그 나라의 주(主)와 치리자로 삼았지만(45:8) 요셉은 바로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할 것을 생각하여서 형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는 좋은 땅을 얻는 것과 애굽 사람에게서 격리될 것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일은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맡아서 나아가는 것이다. 바로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족장 야곱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몫이다.

2. 바로에게 축복하는 야곱

야곱은 바로에게 두 번 축복하였는데, 그 장면을 보면 매우 대조적이다. 축복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뱉을 받”는 것이다(히 7:7). 바로는 큰 제국의 왕이고 안정된 집에서 통치하는 자이고, 야곱은 유목민의 족장으로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의 땅에 우거하러 들어온 자이다. 그리고

바로는 왕으로서 신의 아들로 자처하는데 유목민 족장이 그에게 축복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야곱 때문에 바로와 그의 제국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야곱의 축복은 그가 말하는 내용에서 그 독특한 성격을 더 잘 드러낸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다. 야곱은 ‘나이’라는 말을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라고 바꾸어서 대답하였다. 그가 ‘나그네’를 언급한 것은, 첫째, 자신의 삶이 본향을 찾는 데에 있음을 나타낸다. 지금도 애굽에 영구히 정착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서 잠시 이곳에 온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것이다(15:13; 47:4). 따라서 야곱은 돌아갈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하였다. 둘째, 그런데 그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도 역시 나그네로 묘사하였다. 야곱이 ‘나그네’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둔 곳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견고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것이다(히 11:15-16). 따라서, 셋째로, 야곱의 증거는 바로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지정한 것이 된다. 그저 헛되다는 의미에서 나그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를 담아 말한 셈이다.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험악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과연 그는 안팎의 죄와 더불어 싸운 험난한 삶을 살았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의 삶은 험악하다는 말이 적절하다. 형과의 갈등이 계속 있었을 뿐 아니라 거짓말로 형의 복을 빼앗은 다음에는 맞단 아람으로 갔고, 거기에서는 삼촌 라반뿐 아니라 부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후에는 자식들에게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지금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것은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야곱은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지내고 피곤한데 이제 당신이 거두어 주었으니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야곱은 족장으로서 바로에게 두 번 축복하였고 험악한 세월에 대한 회고는 그 사이에 있다. 따라서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기의 말년을 거두어 주어서 고맙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분도 하나님이고 요셉을 만나게 하여 그것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야곱은 지금 ‘야곱의 일’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받고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연단에 기초하여서 그는 바로에게 축복하였다.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면서도 자신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돌아보고 또한 완성될 본향을 소망하면서 축복하였다. 가난하면서도 아들 요셉을 들어 거드름을 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이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친히 이루신 것을 보면서 축복하였다.

험악한 세월에 대한 평가는 야곱의 다른 말, 즉 나그네 생활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이 된다. 야곱은 자기의 삶을 나그네로 이야기하면서 바로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자기들에게 고센이라는 안정된 땅을 주어서 고맙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야곱은 바로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증언한 셈이 된다. 겸손히 자기의 생활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영원한 나라를 증언하였던 것이다.

야곱은 바로에게 복을 빌었던 것도 언약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야곱과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이다(12:1-3).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얻은 것처럼 바로도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얻은 것이다. 야곱의 축복은 효과가 있어서 흉년 기간에 바로의 권한이 강화되었다(47:13-26).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믿음으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세상 제국의 왕 앞에서 사람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증언하였다. 바로는 안정되게 살던 사람이지만 그에게 ‘나그네의 삶’에 대하여서 증언하였다. 그리고 바로에게 축복을 하였다.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범이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고, 신약의 성도들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선한 증언을 하면서 살 수 있다(딤후 6:13-19). 재물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증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가 외적으로 약하게 보이면 세상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또한 강력하게 보일 때에는 지배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지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증언하면서 살아야 한다.

3. 요셉의 정책에 대한 평가

창세기 47장을 읽으면 요셉이 흉년을 당한 백성들에게 곡물을 무상 배급하지 않고 그것을 계기로 돈과 가축뿐 아니라 그들의 땅과 몸까지도 산 것이 현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요셉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왕권이 강화되고 백성들이 바로의 종으로 전락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들어서 요셉이 민주주의 원리에 역행하였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규범을 고대 사회에 적용하기보다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요셉에게 돈, 가축, 땅, 몸까지 판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요셉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대인의 기대와는 달리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독재자로 생각하지 않고 은인으로 생각하였고(참조. 47:15, 19)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47:25)고 자원하였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7년의 흉년을 넘기게 된 사실을 생각할 때 요셉을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요셉의 정책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첫째는 ‘요셉의 엄격함’이다. 요셉은 백성들의 생활이 흉년 때문에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무상 배급을 하는 온정주의자나 백성의 인기를 모으려는 천박한 정치가가 아니었다. 역사에서 가정을 한다는 것은 조심할 일이지만, 여기에서 만일 요셉이 무상 배급 정책을 폈다면 애굽은 더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이다. 흉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무상 배급을 하면 애굽 사람들은 절약하기보다는 오히려 풍년 때보다도 더 함부로 써서 7년 풍년 동안에 비축한 것으로 7년 흉년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백성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폈다면 오히려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이 엄격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풍년 동안에 비축한 것을 아껴서 흉년 동안에 쓸 수 있었고 또한 백성들도 단정하게 다스릴 수 있었다.

둘째는 ‘요셉의 사랑’이다. 17절에서도 요셉이 그 백성들을 먹였다고 기록하였는데, 25절에서도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라고 말한다. 이 말은 요셉이 20%만을 조세로 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땅과 몸이 바로의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율을 요구해도 그들로서는 거절할 수 없었지만 것처럼 엄격했던 요셉이 이처럼 자비롭게 풍년 때와 똑같은 비율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요셉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들이 바칠 것이 정액제가 아니라 비율에 의한 것이었다. 양을 정해 놓으면 흉년 때에는 아무 것도 건질 수 없고 오히려 빚만 질 것이다. 그러나 비율로 정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도 축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셋째는 ‘요셉의 지혜’다. 26절에서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라고 기록하였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토지 제도가 바뀌게 되었고 그가 세운 제도는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시행되었다. 민주주의를 지고의 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요셉을 비판하지만,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소유가 강조되는 것보다는 강력한 왕권이 백성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전국의 토지를 소유한 강력한 왕권은 나일 강의 치수(治水)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왕권 중심으로 이루게 하였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종합해서 보면 요셉은 통치자로서의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다. 요셉이 엄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너그럽고 슬기로웠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는 엄격함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지혜가 있었다. 엄격함이 없이 사랑만 있었다면 그는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고, 사랑만 있고 엄격함만 있었다면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와 사랑은 빛을 나타낼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덕목들을 계발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

47장 익힘 문제

1. 바호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야곱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9절)
2. 1) 바호는 야곱의 가족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는데 그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1절)
2) 그곳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11절)
3. 1) 기근이 계속되자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기 위해 거래한 것들을 차례대로 말해 보세요.
2)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14, 20절)
4.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바호의 것이 되자 애굽 백성들은 추수의 몇 분의 일을 바호에게 상납하여야 하였습니까? (24절)
5.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27절)
6. 야곱은 애굽 땅에 몇 년을 거하였습니까? 그리고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28절)
7.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 무엇을 맹세하라고 하였습니까? (29, 30절)